

리노공업의 화려한 성장 이면의 그늘, 노동존중은 어디에?

금속노조, 부산 강서 리노공업 앞 결의대회 개최... 이채운 대표이사는 직접 대화에 나서야

금속노조가 노동인권 침해를 일삼는 리노공업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게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6일 오후 부산 강서 리노공업 앞에서 '노조 사수! 단협 쟁취! 리노공업지회 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대구·구미·경주·포항·부산양산지부 조합원들이 함께했다.



리노공업은 반도체 검사용 테스트 핀과 소켓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반도체 산업의 유례없는 호황 흐름을 타고 수년째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 시가총액 1위 기업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노동현장에서는 부당한 노동관행이 누적되며 노동자들은 오랜 시간 심각한 노동인권 침해를 겪어 왔다.

일상적 통제와 감시가 반복됐고, 노동자들의 자율성과 존엄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장시간, 고강도 노동이 이어졌고, 점심시간 외출과 휴가사용은 제한됐다.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매일 사유서를 작성해야 했다. 노동자들은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을 선택했으나, 회사는 압박과 버티기로 일관하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승리하는 조직이다. 금속노조는 가장 큰 제조업 노동자 조직이고, 가장 잘 싸우는 조직이다”라며, “승리하는 그날까지 리노공업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뜨거운 결의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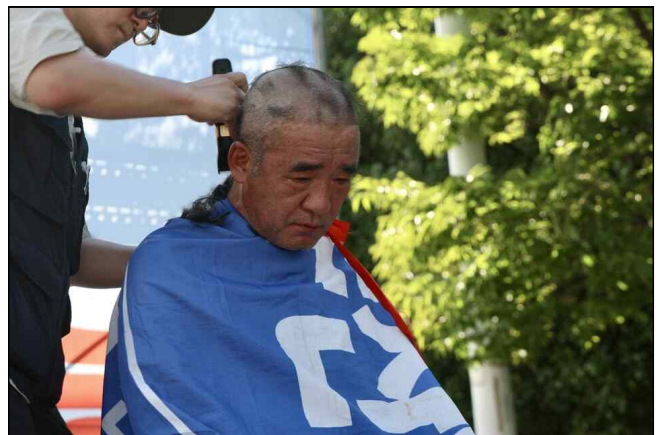
김승하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리노공업지회장은 “이것은 한 사업장의 집회가 아니다. 금속노조 전체가 리노공업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하고 있다”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노동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임금 체계를 제대로 만들고, 앞으로 회사의 성장과 노동자의 삶이 함께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리노공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밤낮없이 회사를 키워온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목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리노공업지회 노동안전부장은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현장에서 느껴왔던 여러 문제들을 바꾸고 노동자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경영지원실을 거쳐 전달되는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회사가 직접 마주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진정한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임청이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리노공업지회 조합원은 “일하다가 다치면 왜 다쳤는지 사유서를 써야 했고, 성과급이 깎일까 걱정돼서 모든 걸 체념한 채 일했고, 불량이 나면 사유서나 대책 마련까지 현장 직원들이 감수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 말아 달라. 노동자들의 피와 땀,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리노가 있는 것”이라고 호통쳤다.

조성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은 발언 전에 투쟁을 결의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조성민 지부장은 “노사 교섭을 통해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금속노조를 인정하라는 이 소박한 요구를 관철하지 못해 죄송하다”라며, “우리들이 따뜻한 손을 마주 잡고 함께 걸어간다면 이 위기를 뚫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을 믿고 목숨을 건 단식 투쟁에 들어가겠다”라고 알렸다.



결의대회는 리노공업 정문 앞에서 단식 농성 투쟁 14일차를 맞은 이현남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리노공업지회 수석부지회장의 발언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현남 수석부지회장은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지지도 않는다. 저희 간부들의 투쟁을 굳건히 믿어달라”며, “우리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고, 또 우리 자신이 어제의 내가 아니다. 끝까지 뭉쳐서 반드시 승리하여 이 모든 게 정당하다는 것을 떼떳하게 보여주자”라고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